

종합

광주 양림동 근대문화유산 관광단지 사업 착수

구도심 활성화 시금석 될까

선교사 사택 원형 복원 등

2013년까지 307억원 투입

근대문화유산 집적지인 광주 남구 양림동이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구도심 재생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가 12일 양림동 일대에 대한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섰다. 이는 과거 구도심 주택가에 대한 고층아파트 재개발 방식과 구분되며,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이 같은 사업방식의 확대 적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오는 2013년까지 모두 3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핵심은 양림동 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 보행 편의 제고 및 생태복원, 관광자원화 등이다.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은 내년까지 20세기 초 개화기 당시 양림동 일대에 자리를 잡고 의료봉사·빈민구호 등을 펼친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순



교자묘역을 정비하고, 그 주변에 6천600㎡ 면적의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데 30억원이 투입된다.

또 192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서양식 주택, 율순(우월순) 선교사의 사택도 6억원을 들여 보수한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양림동에 존재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공동 우물 터와 상징문을 복원하고, 14억원의 예산으로 광주 최초 근대사립학교와 의료원으로 사용된 유진벨(배유지) 선교사의 사택을 원형 복원해 근대역사 전시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양림소공원에 독립운동가이면서 교육자인 오방

최홍중 목사의 기념관 건립, 광주기독병원 주변 공원 조성 등에도 29억원이 배정됐다.

보행 편의 제고 및 관광자원화=양림동 일대의 근대문화유산을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보행 전용길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사직길~충현원길~양림산길~호랑가시나무길~수피아길~역사문화공원길 등 1천400m의 보행 전용길 구축, 양림 숲 가꾸기, 양림산~사직산의 능선 연결 등에 모두 12억원이 투입된다. 양림민음길~양림3길~양림1길 등 625m는 김현승, 황석영 등 국내 문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호남 문인·예술인의 길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전체 예산의 46.9%인 144억원을 들여 주차장과 쉼터공원, 야외휴게시설 등 주민 및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민간자본 53억원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할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의 연계에 의해 연장 60m 폭 2.5m의 나무다리가 설치되고, 역사문화마을 랜드마크로 사직공원 입구에 3·1만세운동 기념 동상 및 동굴폭포도 조성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를 방문한 캐슬린 스티븐스(오른쪽에서 세번째) 주한미국대사가 12일 광주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 강당에서 열린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뒤 박광태(네번째) 광주시장, 차중순(다섯번째) 호신대총장 등과 함께 인근 선교유적지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발포 명령 책임자 밝혀질까

광주 온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기밀문서 해제 발언 주목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미국대사가 1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국의 기밀문서 해제 관련 발언을 함에 따라 발포 명령 최종 책임자·진압군 이동일지·실종자 처리 문제·북한군 동향·시신 수습작업 등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광주 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윤광장 이사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인데, 기념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올해 말 5·18 당시 미국 정부 기밀문서가 해제되면 양국의 관계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밀문서에는 발포 명령 최종 책임자·진압군 이동일지·실종자 처리 문제·북한군 동향·시신 수습작업 등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핵심 의혹 사항들이 밝혀질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미국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작·간접적으

있기 때문이다.

5·18 연구센터 허연식 책임연구위원은 "당시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미 대사를 통해 5·18과 관련된 내용이 보고됐을 것"이라며 "기밀문서가 해제된다면 미국과 관련이 없는 일부 문서만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5·18 기념재단과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뒤 무등산을 등반했다. 13일에는 광주실업여고에서 특강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등 지자체 재정 지원 발전기금조합 내달께 설립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중 35%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운용될 예정이다.

올해 인센티브 300억원을 제외한 2천700억원 중 광주시는 278억원을 배정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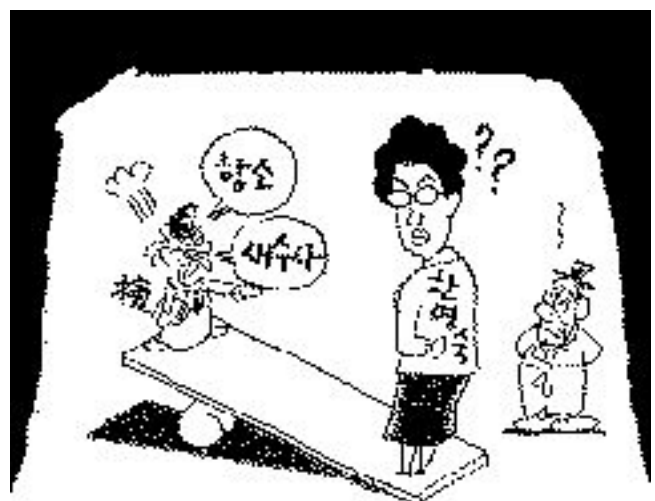
광주시는 12일 "수도권 외 13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 기획관

리실장, 재정담당국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조합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등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다음달께 설립된다. 광주시는 최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을 위한 규약 동의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1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합설립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빛의 만평

- 김중두



이미 기술 것 같은데... 아인가요?

전남 5천여 농가 시설하우스 피해

작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토양 수분 과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시설하우스 농가가 5천여 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12일 "올들어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짧은 반면 강수 일수가 많은 이상 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도내 시설하우스 농가를 파악한 결과, 전체 4천930농가에 1천556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지역 시설 재배면적의 32.5%에 해당한다.

작물별로는 딸기의 경우 이상기온으로 하우스내 습도가 높아 345ha에서 잿빛곰팡이병이 발생,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양분 흡수도 불량하고

당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마토도 325ha에서 열과(터진열상) 부패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호박은 119ha, 파프리카는 46ha, 화훼류는 53ha 등에서 저온성 병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사군별로는 나주가 241ha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피해가 컸고 광양(177ha), 장성(158ha), 보성(134ha), 순천(128ha), 곡성(109ha)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을 25억7천400만원으로 추산하고 정부에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건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북, 개성공단 대남 압박카드 정부 당국·임주 기업들 긴장

북한이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지대 남 압박카드를 삼을 움직임을 보이며서 임주기업들과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통행 차단과 체류인원 제한, 유성진씨 억류, 계약파기, 임금 및 지대인상 요구 등으로 위기를 겪었던 개성공단은 북한이 대남 유화기조로 돌아선 이후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8일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검토를 경고한데 이어

10일 군부 통지문을 통해 남북 육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 이행 문제를 정식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철회할 경우 인력과 원자재, 생산품의 왕래가 불가능해지고 현지 체류인원들은 준(準) 억류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일시적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 벌써부터 임주기업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박람회 부지 폐사일로 재활용 공모에 180팀 참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2일 박람회 부지 내 원통형 폐사일로(silo·시멘트 등 원재료 저장탱크)에 대한 재활용 사업을 국제 현장 공모한 결과, 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9개국 180개팀이 참가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127개 업체가 참가의사를 밝혔고 해외에서도 일본 27개 업체를 비롯, 이탈리아(9개), 미국(6개), 프랑스(5개), 중국(2개), 네덜란드(2개), 멕시코(1개), 호주(1개) 등 8개국 53개팀이 참가 등록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FAX:(062)227-9500

사원모집
본사에서 참신하고 의욕적으로 미래를 창조할수 있는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법
사건번호 : 2010-나-23
사 당 자 : 이옥순(870917-1666711)

오늘의 퀴즈
정답은 2010년 4월 13일
퀴즈의 정답은 광주일보 광고팀에 있습니다.

모집분야
분 야 구 분 인 원 비 고
광고영업 남 0명 연령제한
여 0명 없음

제출서류
서류제출기한
2010년 4월 30일 까지
문의전화 : 062)227-9600
010-2035-3932

금산공인중개사
T.881-5688 H.011-601-5354
(서평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공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고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창고부지 (서평주역 2순환도로변)
■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80㎡)
■ 대지 약 950㎡
■ 매매가: 22억(조정가능)
■ 대지, 창고 분할 매매가능
■ 물류, 창고부지로 최적지

아리울공인중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 펜션건물(투자, 직영,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적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단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지
▶ 투자용 전원주택 단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
하고 한가로움 전원 주택지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전원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클리는 년 25%이상
모집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무인텔 매각공고
◆ 대 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 특징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 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객이용이 편리함
- 인테리어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함
- 매출 수익보장, 유동인구 많음
- 홈페이지 개설운영, 최첨단 드라이브인
연락처 : 010-5614-1126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토폰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